

# 휘청이는 '중국'

### 부도 위험, 재정위기국 이탈리아·스페인보다 높아

### 성장률 하락·부실자산 경계감...투자자들 발길 돌려

중국의 부도 위험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본격적인 위기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도위험, 재정위기국 이탈리아보다 높다=9일 국제금융시장 따르면 중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기준 120.8bp(1bp=0.01%포인트)로 재정 취약국인 스페인(101.5bp)·이탈리아(116.0bp) 보다 높다.

CDS프리미엄은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외채)에 대한 부도보험료로, 각국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클수록 부도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중국은 한때 재정파탄 상태까지 몰렸던 이탈리아보다 CDS 프리미엄이 낮았

으나 이달 들어 역전됐다. 중국과 엮이락뒤지락하던 스페인도 지난 7월 15일 이래 CDS 프리미엄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데 비해 중국은 크게 올랐다.

◇중국의 부도위험 가파른 상승세=중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14일 101.0bp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을 포함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지난달 24일에는 122bp까지 치솟으며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패닉에 빠졌던 세계 금융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27일에는 110bp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다시 최고치 경신을 시도 중이다. /연합뉴스

◇중국 부도위험 왜 커지나=중국 CDS 프리미엄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성장률 전망이 하락하고 있으며 버블이 터지면서 자산 부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계감이 세계 금융시장에 퍼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 여신은 7년 만에 1조 위안을 넘어섰다.

무디스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은데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디스는 작년 말 기준 국유기업들의 금융비용이 19.2%나 증가했는데, 이익은 그와 3.4% 증가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를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부양책을 펼치는데도 증시가 요동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아베 독주 '일본'

### 자민당 총재선거 무투표 연임...총리직 3년 더

### 아사히 신문 "당, 여론 다양성 인식할 기회 포기"

일본 언론은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무투표 연임하게 된 것과 관련, 당 스스로 다양성을 포기한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총재선거는 후보자끼리 정책 논쟁을 통해 여러 의견이나 여론이 있음을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자민당이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9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 측이나 업계단체 간부로부터 총재선거 출마를 시도하는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회장을 지원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은 의원이 있다고 소개한 뒤 무투표 연임을 위한 그간 자민당 내 움직임이 "아베 총리에 대한 아첨 경쟁"이라고 비판 기사(岸田) 파 소속 중견 의원 발언을 전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잃어버린 활력'이라는 제목의 슌에쓰쿠 소조(末次省三) 정치부장 칼럼에서 "자민당이 언제부터 이 정도로 활력이 없는 조직이 돼 버린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이 결함을 드러낸 현실과 아베노믹스(경제정책)를 포함해 정권이 나아갈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며 총재직을 무투표 연임하게 된 것에 "우려했다"고 사실을 썼다.

반면 보수 언론은 무투표 연임을 당연한 결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정·외교에서 실적도 쌓아 왔다"며 "당내 7개 파벌 전체가 지지를 표명한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사실을 실



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시야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정권의 기반이 반석 위에 올랐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평가하고 아베 총리는 다플레이션 탈출 완수와 경제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영 엘리자베스 여왕 최장 통치 군주 등극

### 2만3226일 16시간23분...빅토리아 여왕 기록 넘어서

엘리자베스 2세(89) 여왕이 9일 영국을 최장기간 통치한 군주에 등극한다.

여왕은 영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 10일 오전 1시30분)께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기간인 2만 3천 226일 16시간 23분을 넘어선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영국인 수백만 명이 여왕의 역사적 순간을 기념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그는 "지난 63년간 여왕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버팀목이 돼 줬다"면서 "여왕이 보여주시는 봉사와 의무의 이타정신을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칭송해왔다"고 말했다.

영국 비킹업공은 최장통치 군주 등극을 기념해 집무 중인 여왕의 사진을 배포했다. 사진 속 여왕은 비킹업공 접견실 의자에 앉아 빨간 가방에 담겨 전달된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촬영된 것으로 비스 템버였던 폴 매카트니의 딸 메리 매

카트니가 찍었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발모랄 성에서 여름을 나고 있는 여왕은 특별한 기념식 없이 조용히 이날을 보낼 계획이다.

여왕은 스코틀랜드 증기 열차 개통식에 참석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왕실은 전했다.

1926년 4월 21일 태어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2월 6일 부친인 조지 6세가 세상을 뜨자 25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었다.

여왕이 최장수 통치 군주가 되는 동안 왕위 계승 1순위인 찰스 왕세자는 66세가 됐다. 다이애나비에게서 태어난 손자 윌리엄이 결혼해 여왕에게 증손주 조지 왕자와 살럿 공주까지 안겼다. 여왕의 고조모인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 6월 왕위에 올라 1901년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63년 넘게 영국을 다스려 그동안 최장기간 통치 군주로 기록돼 있었다. /연합뉴스



영 여왕 '진짜 같은 가짜'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테스 밀랍 인형관에서 한 직원이 밀랍으로 만든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예복을 입히고 있다. 9일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사상 최장 통치 군주가 됐다. /연합뉴스

# EU '난민 쿼터제' 통과 전망

### 영 언론 "압도적 다수 지지 얻을 것" ... 14일 브뤼셀서 표결

유럽 각국이 일정 인원의 난민을 나눠 수용하도록 하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동유럽 국가의 반대 속에서도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 명을 회원국에 분산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추진했던 난민 4만 명 분산안에 12만 명을 추가한 것이다.

미리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독일이 3만1천 명, 프랑스 2만4천 명, 스페인이 1만5천 명 가량을 추가로 수용해 3개국

이 12만 명 중 60% 가량을 추가로 받아들이게 된다.

융커 위원장이 계획안을 공개하면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EU 법부·내무장관들이 모여 논의하게 된다.

이후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EU와 난민 관련 면제 협약을 맺어 할당을 거부할 수 있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26개국이 이 계획안을 놓고 표결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거부권을 포기하고 난민을 수용하기로 해 표결에 참여한다.

인디펜던트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미 계획안이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난민 분산 계획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이다. /연합뉴스

# 美 백악관도 "난민 수용 확대"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자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 수용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시 에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시리아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어려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다양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조치에는 요르단과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 주변국 난민캠프에 대한 식량·주방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본토로 난민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FDA 품질인증  
구운소금 추석 선물세트

소중한 분께 귀한 마음을 전하세요

2호세트 48,000원

3호세트 40,000원

4호세트 20,000원

상기 세트가격은 소비자가격 (택배비용외)입니다.  
10세트 이상 선물구입은 전화주시면 공장도 가격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0770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예약 | 황토참숯가마 한우&돼지갈비전문점  
주문 | 참숯, 목초액, 구운소금

참숯가마

9월 21일부터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불빼는 날 화, 목, 토, 일
- ▶ 다량의 원적외선과 좌훈으로 힐링
-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품격있는 모임은 1+ 이상의 한우암소
- 부담없는 외식은 참숯 직화구이 돼지갈비(국내산)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